

## 남자 대학생의 신체의식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鄭容熙·金創鉉\*

영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 A Study on Body Consciousness, and Clothing Behavior of Male College Students

Yong-Hee Joung and Chang-Hyun Kim\*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Ye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Yeungnam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ccordingly, to examine male college student's general body consciousness and their actual condition of wearing clothing, as it's assumed that clothing, which everyone must always wear, might be effective in making up for the physical de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ale College Students' Body Consciousness: They expressed some dissatisfaction with their own body, and they were most discontented with their height, among their bodies. They thought of the western-style shape as an ideal one, as what's considered by them to be ideal was thinner a little than them, being taller with wider shoulder, longer legs, smaller and white face.
2. Male College Students' Characteristics of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In purchasing clothing, male college students were slightly sensitive about the physical part with which they wasn't satisfied. The clothing pattern preferred by them was an abstract one, and their favorite color was white or black. The greatest number of them put most emphasis on design in buying clothing, and they purchased clothing mainly at special fashion shop. On the whole, they showed an affirmative response toward wearing Korean costume, and they also had a positive opinion about the purchase of reformed Korean dress for everyday life.
3. Male College Students' Characteristics of Wearing Clothing: They appeared not to consider making up for physical weakness. Male college students favored aloha shirt and trousers when they went out. Male college students purchase clothing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manly, classical, tender, or comfortable factors.
4. Relationship of Body Consciousness to Wearing Behavior: The degree to which they considered covering up physical weakness in wearing clothing was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two groups: one was a group that thought their own shape normal, and the other was a group that didn't think of their own shape as normal. As a result, both groups appeared not to consider covering up physical weakness.

Key words: body consciousness, clothing behavior.

#### I. 서론

의복은 인간의 친밀한 일부분으로 개인의 용모, 착용자의 가치, 태도, 성격 등을 반영한다. 초기 심리학자인 William James<sup>1)</sup>가 언급하였듯이 인간은 영혼,

1) James, W., *Principle of Psychology*, vol. 1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80.

육체, 의복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의복을 중요시하고 의복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의복은 자아개념 특히 신체적 자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Ryan<sup>2)</sup>에 따르면 의복은 자아개념을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역으로 개인의 자아개념은 의복선택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 Williams에 의하면 의복은 신체와 표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Body Image속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개인이 의복을 변화시키면 Body Image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의복은 개인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복잡 다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출하는 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남성들은 패션의식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남성들이 미용실을 출입하는 일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며 남성 전용미용실이 성업중이기도 하다. 과거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패션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에서 남성들을 발견하고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보던 것도 이제는 옛이야기가 된 것 같다. 패션에 더욱 민감한 일부 남성들은 머리를 염색하고 귀고리를 달거나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거기다가 머리띠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세계 10여개국에서 발행되며 66년 전통을 자랑하는 남성종합지인 에스콰이어를 보면 상당 부분을 패션 난으로 장식하고 있다. 패션 난 속에는 코디네이션, 패션칼럼, 액세서리, 쇼핑정보, 미용, 건강, 요리 등 여성지 못지 않게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광고의 많은 부분도 패션관련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 각질제거 등의 남성전용 화장품도 쉽게 볼 수 있고 면접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가장 닭고 싶은 몸매의 연예인이 누구라는 등 남성들도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가꾸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사회속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천적으로 좋은 체형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Image Making을 할 필요가 있다. 비만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커다란 점을 수술하는 등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러한 한계를 보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적절한 옷차림으로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 여성들에 대한 신체의식이나 만족도 등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들의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 신체의식에 따른 착장행동, 구매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을 남자 대학생으로 한 것은 외모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이인 청년기에 속하며, 중·고등학교 시절 입던 교복에서 벗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남자 대학생의 신체의식정도를 알아본다.
2. 남자 대학생의 의복착장행동의 특성을 알아본다.
3. 남자 대학생의 의복구매행동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4. 남자 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착용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체적 자아와 인상형성

신체의식은 신체적 자아의 깨달음,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신체를 타인들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인상형성의 관계, 즉 대인지각이론 측면에서 의복은 외모와 아울러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타인을 지각하는 첫 번째 단서중의 하나가 그 사람의 신체적 외모이다. 어떤 사람의 체격, 즉 크기, 체형, 건강상태 등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

2)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Inc. 1966.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첫 인상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으며 실제체형에서 이 불만족 부분을 의복으로서 보완한다면 자아개념의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아개념에 대한 이론은 학자들간에 다소의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의 자아이론 발달의 기초를 마련한 William James<sup>3)</sup>는 자아 (self)를 경험적인 자아 (empirical) 즉, “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좀더 넓은 의미에서 한 사람의 자아는 “그가 그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합친” 것이다. 그의 자아에는 신체, 정신적 힘뿐만 아니라 의복, 집, 아내, 자녀, 조상, 친구, 명예, 소유지, 기타 소유물, 은행예금까지도 포함시켰다. 또, Hall과 Lindzey<sup>4)</sup>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및 느낌의 집합체”라 하였다.

Newcomb<sup>5)</sup>은 자아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정해진 준거의 틀에서 스스로에 의해 지각된 자기자신이라고 정의하였고, Rosenberg<sup>6)</sup>는 개인이 자기자신을 객체 혹은 하나의 대상으로 해서 가지는 자기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의 총체라고 하였다.

Sirgy<sup>7)</sup>는 자아 이미지를 실제 자아 이미지 (actual self image), 이상적 자아 이미지 (ideal social self image)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실제 자아 이미지는 개인이 자기자신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지각이며, 이상적 자아 이미지는 개인이 자기자신이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아 이미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상적으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상적 사회적 자아 이미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상적으로 어떻게 봐 주기를 바라는 이미지로 보았다. 이와 같이 자아의 구성 이미지는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는 형태상 실제로 지각되는 자아와 어떻게

그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자아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와 현실적 자아 이미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의복이 흔히 사용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실제적 자아 이미지 보다 더욱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는다. 그러므로 작용하는 의복에 따라서 자아 개념이 보완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Richard와 Hawthorn<sup>8)</sup>의 남자대학생들의 신체적 만족도, 가치관, 의복태도 등의 연구에서 신체적 만족도는 가치관에도 의복태도에도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남자는 신체의 외모 보다는 신체의 기능에 더 관심을 가지므로 신체를 의복과 분리시켜 본다고 결론지었다.

## 2. 의복 행동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성격, 신분 등을 반영한다. 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는 20세기 초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행동 체계적인 방법 (Behavior System)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복 행동은 몇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이나 견해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에 사용되는 의복행동변인으로는 Creekmore<sup>9)</sup>의 8가지 변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변인은 심미성 (aesthetics), 예의성 (modesty), 편의성 (comfort), 흥미성 (interest), 주의성 (attention), 관리성 (psychological dependence) 등을 사용하여 의복 행동을 연구하였으며 Klasen, Young, Kuehue 등의 학자들도 이 8가지 변인을 사용하였다.

이외 다른 학자들이 사용한 의복행동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ead<sup>10)</sup>는 질 (quality), 편의성 (comfort), 어울림 (belongingness), 관리의 용이성 (ease of care)으로 4개

3) James, W. 앞의 책, 1980.

4) Hall, C. S. and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 Y. : John Wiley & Sons 1970.

5) Newcomb, T. M., *Social Psychology* (N. Y. : bryden press) 1950.

6)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 Y. : Basic Books) 1979.

7) Sirgy, M. J., *Self Concept in Consumer Behavior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82.

8) Richards, E. A. & Hawthorne, R. 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1 63(3), 190.

9) Creekmore, A. 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 Project. Michigan State Univ. 1966. 783.

변인을 사용하였고, Finlayson<sup>11)</sup>은 어울림 (becomingness), 심미성 (beauty), 편의성, 인정성 (approval), 관리의 용이성, 좋은 상품 (good buy) 등을 제시하였고, Alexander<sup>12)</sup>는 외모 (physical appearance), 개성 (personality), 주의집중성, 동조성, 신분상징성, 자아만족, 부정성 (negative)을 제시하였다.

Aiken<sup>13)</sup>은 의복관심과 성격과의 상관관계에서 장식성 (decoration), 편의성, 흥미성 (interest), 동조성, 경제성 (economic)의 5가지 변인을 사용하였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김광경<sup>14)</sup>은 심미성, 예의성, 신분 상징성으로 의복행동 변인을 다루었으며, 임춘봉<sup>15)</sup>은 예의성, 준수성 - 개성, 만족도를, 강혜원<sup>16)</sup>은 추종성 - 개성, 유행, 외모를 변인으로 선정하였고, 신옥순<sup>17)</sup>은 외모에 대한 자기개념, 개성, 동조성으로, 이경순<sup>18)</sup>은 만족도, 과시성, 유행을 다루었으며, 이

남미<sup>19)</sup>는 심미성, 유행과 색채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전경숙<sup>20)</sup>, 최순희<sup>21)</sup>는 심미성, 예의성, 유행과 사치성으로 의복행동 변인을 정하였으며, 이금실<sup>22)</sup>은 유행, 신분상징성, 만족도로, 김정호는 실용성, 중요성, 의복 구매시 합리성도, 추종성 - 개성을 다루었으며, 장경남<sup>23)</sup>, 최혜선<sup>24)</sup>, 이은주<sup>25)</sup>, 홍금희<sup>26)</sup>, 변기혜<sup>27)</sup>는 모두 Creekmore의 8개 변인을 사용하였다. 김영인<sup>28)</sup>은 예의성, 동조성, 유행으로, 이명희<sup>29)</sup>는 심미성, 예의성, 주의집중성, 경제적 과시성, 성적매력성을 의복행동 변인으로 다루었다. 이상에서 볼 때,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편의성, 동조성, 관리성, 경제성을,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심미성, 예의성, 유행, 동조성, 개성 변인을 많이 다루었고, Creekmore의 8개 변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행동 중 의복의 착용행동과 선

- 10) Mead, M. E., *Disagreement Between Adolescent Girls and Their Mothers Concerning* M.S. Thesis, Iowa State College 1957.
- 11) Finlayson, B., *An Investigation of Consumer Motivation in the Selection of Sweater as Related General Personal Values* M. S. Thesis, Cornell Univ. 1959.
- 12) Olive Ness Alexander, *A Pilot Investigation of the Motives Underlying the Desire to Feel Well - Pressed at Various Age Levels* M.S. Thesis. Cornell Univ. 1961.
- 13) Aiken, L. R., *The Relationship to Selected Measures of Personality in the Undergraduate Wom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63.
- 14) 김광경 "일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15) 임춘봉 "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 16)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제11집.
- 17) 신옥순 "자기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심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18) 이경순 "성인남자의 자기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19) 이남미 "교사의 의상행태가 학습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복의 심미성, 유행성, 색채중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20) 전경숙 "여대생 의상행태에 대한 남자 대학생의 관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 21) 최순희 "여성 의복행태에 대한 남녀별 반응과 가족가치관의 상관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22) 이금실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서울의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23) 장경남 "저임금 근로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고찰"-서울의 섬유와 봉제공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 24) 최혜선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전감, 불안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서울 시내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25) 이은주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의복행동과의 관계"-서울 시내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26) 홍금희 "수용성, 경직성 성격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27) 변기혜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28) 김영인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29) 이명희 "예의·정숙성과 심리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3.

택행동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보겠다.

### 1) 착용행동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관심과 중요성을 의미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구성된 것이 의복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남자들에게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변인으로 유행관심, 신분상징성, 동조성, 실용, 안락감 등이 있다.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강혜원<sup>30)</sup>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이 회사원보다 유행을 더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유행관심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또, 김병미<sup>31)</sup>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은 실질적인 면에 치중하여 활동하기 편리한 의복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조성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은 여성보다 의복동조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보다 규범의 이탈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이며 또한 의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병미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조성을 연구한 결과 남학생은 타인과 같게 보이고 싶은 욕구로 의복을 선택한다고 하여 동조성이 중요한 행동요인임을 시사했다.

### 2) 선택행동

선택행동에 대한 연구는 김찬주의 연구에서 정보에 대한 관심과 정보탐색유형의 연구<sup>32)</sup>중 연령에 있어 40대가 20대에 비해 마케터 주도 정보원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20대는 중립적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대학생들은 주로 진열상품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정은<sup>33)</sup>의 연구에서도 상점의 진열제품이나 친구, 거리 사람들의 차림새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상점과 선호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들의 구매경향은 여성과 달라 쉽게 구매장소를 바꾸지 않는 보수경향을 나타내는데 박정은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의복을 구매하는 장소로 시장, 유명제조업체 대리점, 직매점, 백화점의 순이었고 시장을 구매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 제품을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및 측정 방법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생활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9문항, 체형의식 및 체형만족, 체형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한 7문항, 의복구입 행동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형만족에 관한 문항은 전체적인 스타일과 신체 각 부분에 대한 만족 정도를 본 것으로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불만 (1점)~만족 (5점)의 5점 척도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체형평가 문항은 실제체형자가평가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각각 22개 항목으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의복구매태도는 12항목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의복 착용에 관한 사항은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검사를 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와 같다 (표 1).

<표 1> 신뢰도 측정

변 인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신체에 대한 만족도	.7750
실제체형에 대한 자가평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	.8388 .9424
전체적인 스타일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7225
상반신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5809
하반신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5046
얼굴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6479
선호하는 의복 이미지	.7755

30)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제17집 1974.

31) 김병미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권 3호 1975.

32) 김찬주 "의복구매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에 관한 연구(II)" 한국의류학회지 16권 1호 p73~83 1991.

33) 박정은 "남자 대학생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lt;표 2&gt; 연구대상의 분포

변 인	구 분	빈 도 (%)	변 인	구 분	빈 도 (%)
연령	22세 이하	133(52.6)	현주거형태	단독주택	127(50.2)
	23세 이상	120(47.4)		공동주택	126(49.8)
출생순위	만이	97(39.6)	형제자매수	2명이하	120(47.4)
	중간	39(15.9)		3명	86(34.0)
	막내	109(44.5)		4명이상	47(18.6)
동성형제 유무	유	148(58.5)	독방사용 여부	여	178(70.6)
	무	105(41.3)		부	74(29.4)
성장지	대도시	148(58.7)			
	중소도시	52(20.6)			
	농어산촌	52(20.6)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권 소재 3개 대학에 재학중인 남자 대학생 280명을 편의 선정하여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질문응답의 내용이 무성의한 부분과 비회수 부분을 제외한 총 253명의 자료를 채택하였다. 연구 대상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PC\* 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검사, 평균표준편차, T-test,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남자 대학생의 신체의식

### 1) 외모에 대한 의식과 평가

남자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의식과 평가를 보면 (표 3), 외모에 신경을 쓰는 정도는 5점 리커트 평가에서 평균 3.35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신경을 쓴다고 할 수 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비율은 22.9%이나 신경 쓴다는 비율은 그 두 배가 넘는 46.9%로 나타났다. 타인을 처음 대할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으로 얼굴 (54.8%), 체형 (17.2%), 의복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디자인을 할 때 얼굴 부위를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과 전체적인 실루엣에 신경 써서 디

&lt;표 3&gt; 외모에 대한 의식과 평가

변 인	구 분	빈 도 (%)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	신경 쓰지 않음	7( 2.8)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음	51(20.1)
	보통	77(30.3)
	조금 신경 씀	85(33.5)
	신경 씀	34(13.4)
	M(SD)	3.35(1.03)
타인을 처음 대할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	머리모양	13( 5.2)
	얼굴	137(54.8)
	의복	32(12.8)
	체형	43(17.2)
	악세사리	5( 2.0)
	기타	20( 8.0)
자신의 체형평가	매우 여윌었음	11( 4.4)
	여윌었음	65(25.8)
	보통	145(57.5)
	똥똥함	28(11.1)
	매우 똥똥함	3( 1.2)
	M(SD)	2.79( .74)
체형보완을 위한 노력	운동을 함	39(39.0)
	식사조절	15(15.0)
	의복으로 보완	17(17.0)
	무관심	29(29.0)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체형	근육질 체형	61(25.0)
	마른 체형	20( 8.2)
	보통 체형	155(63.5)
	똥똥한 체형	8( 3.3)

자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 (57.5%)이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여위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30.2%),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12.3%)보다 많았다.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한 학생이외의 학생, 즉 말랐거나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체형 보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는 운동 (39.0%)이 가장 많았고 무관심 (29.0%), 의복으로 보완 (17.0%), 식사조절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운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운동이나 식사조절 같은 것은 체형보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장기적인 인내력이 요구되어진다. 이런 것들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의복을 이용하여 결점부분을 보완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둘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남자 대학생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보통체형 (63.5%)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2) 신체 만족도

남자 대학생들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표 4) 5점 평가에서 모두 평균 3점 이하를 나타내어 약간 불만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키에 대한 불만 (2.69%)이 가장 크며, 체형을 알 수 있는 전체적인 스타일 (2.98%)은 불만의 정도가 가장 적었다.

3) 체형평가

남자 대학생들은 실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자가평가를 25개 항목에 대하여 5점 리커트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5).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3.02점으로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중 신장 (2.85점)에 대한 평가

<표 4> 신체 만족도 조사

변 인	M(SD)	변 인	M(SD)
전체적인 스타일	2.98(.94)	상반신	2.76(1.00)
하반신	2.89(1.11)	신장	2.69(1.24)
체중	2.74(1.05)	얼굴	2.97(1.00)

<표 5> 체형에 대한 평가

변 인	실제 체형에 대한 자가평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	t값
	M(SD)	M(SD)	
스타일	3.31(.83)	2.99(.96)	3.687***
신장	2.85(.94)	3.46(.93)	-9.621***
몸통	2.93(.68)	2.95(.92)	-1.144
어깨폭	3.00(.90)	2.81(.98)	2.308*
어깨처짐	3.10(.68)	2.76(.67)	6.209***
가슴	3.07(.84)	3.50(.97)	-6.338***
팔굽기	3.15(.95)	2.88(.99)	2.912**
손가락 굽기	2.99(.93)	3.17(.93)	-2.762**
손크기	3.00(.92)	2.98(.92)	-.303
허리굽기	3.08(.93)	3.27(.87)	-2.999**
엉덩이 크기	2.93(.88)	2.95(.80)	-.927
엉덩이 높이	2.99(.60)	3.24(.74)	-5.307***
배	2.87(.92)	3.42(.92)	-8.487***
다리굽기	2.94(.95)	3.12(.97)	-2.550*
다리모양	2.91(.57)	2.97(.57)	-2.332*
허벅지 굽기	2.85(.97)	2.97(.97)	-1.857
발목 굽기	3.19(.86)	3.19(.90)	-.513
발크기	3.02(.79)	3.00(.89)	-.227
다리길이	2.87(.86)	3.54(1.00)	-9.943***
얼굴크기	2.87(.80)	3.37(.88)	-7.833***
목굽기	3.00(.88)	3.14(.91)	-2.547*
목길이	3.17(.77)	3.30(.78)	-2.920**
피부색	2.93(.92)	3.30(.96)	-4.921***
얼굴길이	3.02(.79)	2.99(.76)	-.063
건장함	3.44(.95)	3.74(1.01)	-4.614***
전체	3.02(.38)	3.16(.58)	-5.542***

가 가장 낮아, 신장은 작고 허벅지는 가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건장함 (3.44점), 스타일 (3.31점)은 비교적 평가가 높아 전술한 <표 4>에서 전체적인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가장 적었다는 점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제 체형에 대한 자기평가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3.16점을 나타내어 자가평가보다 약간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장함이 3.74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가평가와의 차이 검정에서 P <.001 수준으로 인정되었다. 어깨 처짐이 2.76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으며 P <.001수준으로 자가평가와의 차이가 인정되

었다. 그리고 건장한 체형을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몸통, 손의 크기, 엉덩이 크기, 허벅지 굵기, 발목 굵기, 발크기, 얼굴길이 등에서는 자가평가와 이상체형간의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의복구입행동 특성

1) 구매스타일

남자 대학생들이 의복구입시 신체의 불만요소에 신경쓰는 정도는 5점 리커드 척도에서 평균 3.11점으로 약간 신경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즉, 신경을 쓰는 비율은 39.1%로 신경을 쓰지 않는 비율 24.1%보다 많다.

옷을 구입할 때 동행하는 사람으로는 친구 (54.9%), 혼자 (20.9%), 이성친구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이는 청소년의 특징이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의식이 가장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자 대학생들은 친구와 같이 쇼핑을 많이 하며, 친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여패럴업계에서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동행자에 대한 상품소개 및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겠다.

패션정보원으로는 매장의 진열상품 (49.0%), 동료 (21.0%), 인터넷 (13.6%), 잡지 (9.1%), T.V광고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남자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업체에서는 매장의 디스플레이에 보다 신경을 쓰는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한 광고나 홍보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남자 대학생들의 의복구입 빈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계절별로 한 번 (44.8%)정도 구입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수시로 구입한다 (28.0%)라고 대답한 학생도 상당수 보여 의복구입 빈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

<표 6> 의복구입시 신체의 불만요소에 신경쓰는 정도

변인	구분	빈도 (%)
의복구입시 신체의 불만요소에 신경 쓰는 정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음	14( 5.5)
	신경 쓰지 않음	47(18.6)
	보통	93(36.8)
	신경 씬	95(37.5)
	아주 신경 씬	4( 1.6)
	M(SD)	

<표 7> 의복구매

옷 구입시 동행인	부모님	16( 6.6)
	친척	0( 0.0)
	형제, 자매	20( 8.2)
	친구	134(54.9)
	이성친구	23( 9.4)
	혼자	51(20.9)
패션 정보원	TV광고	18( 7.4)
	잡지	22( 9.1)
	전단	0( 0.0)
	동료	51(21.0)
	매장의 진열상품	119(49.0)
	인터넷	33(13.6)
옷 구입 빈도	1개월에 한 번	28(11.2)
	계절별로 한 번	112(44.8)
	1년에 한 번	28(11.2)
	수년에 한 번	12( 4.8)
	수시로	70(28.0)

인다.

2) 의복 선호요소

남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복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양, 색상, 소재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표 8>, 선호하는 의복문양은 추상문양 (40.2%), 체크문양 (26.8%), 무지 (15.9%), 줄문양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남자대학생들은 무늬가 없는 옷보다 추상적인 무늬의 옷을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선호하는 의복 색상으로는 흰색 (35.7%), 검정색 (34.5%)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무채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색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좋아하는 색이라서가 (52.4%), 나에게 어울리는 색이다가 (45.0%)로 나타났고, 소수의견으로 유행색이다 (0.4%), 날씬해 보이므로 (1.3%), 건장해 보이므로 (0.9%) 등의 의견으로 보아 남자 대학생들은 체형보완을 위한 색이나 유행색에는 별로 관심이 없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선호하는 의복색상 조사에서 금년의 유행 색이었던 그레이 계통이 0%로 나타난 결과로 뒷받침된다.

선호하는 의복의 소재조사에서는 겨울옷에서는 가죽 (36.4%), 울 (30.1%), 면 (11.9%)의 순이었고, 여름

&lt;표 8&gt; 선호하는 문양, 색상

변인	구분	빈도 (%)
선호하는 의복문양	체크문양	66(26.8)
	꽃문양	1( 0.4)
	줄문양	31(12.6)
	물방울 문양	1( 0.4)
	기하학적 문양	9( 3.7)
	추상문양	99(40.2)
	무지	39(15.9)
가장 선호하는 의복색상	흰색	90(35.7)
	검정색	87(34.5)
	적색계	8( 3.2)
	주황색계	3( 1.2)
	황색계	5( 2.0)
	녹색계	1( 0.4)
	황록계	0( 0.0)
	녹색계	14( 5.6)
	청색계	14( 5.6)
	근색계	1( 0.4)
	자주색계	1( 0.4)
	와인색계	3( 1.2)
	핑크계	4( 1.6)
	브라운계	20( 7.9)
	베이지계	1( 0.4)
그레이계	0( 0.0)	
선택한 색상을 선호하는 이유	유행색이므로	1( 0.4)
	나에게 어울리는 색이므로	103(45.0)
	좋아하는 색이므로	120(52.4)
	낯선해 보이므로	3( 1.3)
	건강해 보이므로	2( 0.9)

옷 소재로 좋아하는 것은 면 (69.1%)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서 천연소재를 선호했다 (표 9).

### 3) 의복 구매태도

의류구입시 가장 중점을 두는 항목으로는 디자인 (60.9%), 색상 (15.3%), 가격 (8.5%)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디자인을 가장 우선시 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메이커명이라고 대답한 학생 (3.6%)은 의외로 적었다. 그러므로 의류업체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 같다.

의복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로는 전문점 (49.6%), 할인매장 (18.4%), 백화점 (17.3%) 등의 순으로 나타

&lt;표 9&gt; 선호 소재

변인	구분	빈도 (%)
겨울옷 소재로 좋아하는 것	울	71(30.1)
	아크릴	0( 0.0)
	면	28(11.9)
	실크	9( 3.8)
	마	4( 1.7)
	가죽	86(36.4)
	모피	21( 8.9)
	폴리에스테르	4( 1.7)
	합성섬유	5( 2.1)
	천연과 합성 혼방	8( 3.4)
여름옷 소재로 좋아하는 것	울	7( 3.2)
	아크릴	1( 0.5)
	면	152(69.1)
	실크	18( 8.2)
	마	15( 6.8)
	가죽	4( 1.8)
	모피	2( 0.9)
	폴리에스테르	6( 2.7)
	합성섬유	8( 3.6)
	천연과 합성 혼방	7( 3.2)

나서 남자 대학생들은 전문점을 선호하였고, 그런 장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개성에 맞아서 (46.2%), 가격이 싸서 (25.6%), 교통이 편리해서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의류유통 업체 등에서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정확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표 10).

의복 수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리커드 척도로 평가한 결과 (표 11), 평균 2.76점으로 조금 불만으로 나타났다. 즉, 불만인 집단이 (38.1%)로 만족 집단 (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금 구입하고 싶은 의복으로는 대체로 바지 (22.6%), 캐주얼 슈츠 (21.3%), 남방, 티셔츠 (18.3%) 등의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고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이므로 드레스 셔츠에는 관심이 적었다.

의복구입에 대한 태도를 12개의 5점 양극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표 12). 그 결과, 남자대학생들은 바겐세일을 어느 정도 잘 이용하고 있고, 점원이 원하는 옷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구입하며, 주로 시즌 초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다지

&lt;표 10&gt; 의복 구입 장소

변인	구분	빈도 (%)	
의류 구입시 가장 중점을 두는 항목	디자인	151(60.9)	
	소재	6( 2.4)	
	색상	38(15.3)	
	무늬	2( 0.8)	
	가격	21( 8.5)	
	품질	11( 4.4)	
	유행	10( 4.0)	
	메이커명	9( 3.6)	
	의복 구입시 주로 이용하는 장소	백화점의 일반의류코너	16( 6.6)
		백화점의 브랜드 코너	26(10.7)
전문점		121(49.6)	
시장		16( 6.6)	
양품점		3( 1.2)	
동네 가게		3( 1.2)	
통신판매		0( 0.0)	
할인매장 기타		45(18.4) 14( 5.7)	
그 장소를 이용하는 이유	가격이 싸서	50(25.6)	
	유행에 민감해서	21(10.8)	
	개성에 맞아서	90(46.2)	
	교통이 편리해서	34(17.4)	

&lt;표 11&gt; 의복수와 구입하고 싶은 의복

변인	구분	빈도 (%)
지금 소유한 의복수에 대한 만족도	불만	16( 6.4)
	조금 불만	79(31.7)
	보통	114(45.8)
	조금 만족	29(11.6)
	만족	11( 4.4)
	M(SD)	
지금 구입하고 싶은 의복	캐주얼 슈츠	49(21.3)
	양복 슈츠	41(17.8)
	드레스 셔츠	3( 1.3)
	남방, T셔츠	42(18.3)
	니트류	32(13.9)
	바지류 코트류	52(22.6) 11( 4.8)

상점을 중요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의류업체나 유통업체에서는 바겐세일시

&lt;표 12&gt; 의복구입에 대한 태도

변인	M(SD)
가격 중시	2.96( .96)
유행은 상관성	3.15( .96)
바겐세일 이용성	3.62( .79)
시각적인 미 중시성	2.52( .97)
브랜드의 상관성	3.05( .98)
의복구입시 계획성	3.09( .84)
의복에 돈 투자성	3.00( .93)
의복구입시기(시즌초)	3.29( .72)
자신의 취향 중시 구매	3.61( .99)
상점 중시	2.44( .94)
잘 안 입는 옷은 빌려 입음	2.95( .72)
갖고 싶은 것은 비싸도 구매	3.10(1.09)
전체	3.06( .32)

남자 대학생들을 위한 EVENT 등을 고려해 볼 만하고 남성복 매장의 판매원은 적극적으로 권하는 판매 방식보다는 고객(남자대학생)의 개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고객 스스로 자연스럽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남자 대학생들은 상점을 중요시하지 않으므로 상점들은 고정고객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마일리지 서비스나 현물 보상 교환판매 등으로 상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상점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4) 한복구매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한복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요즘 생활한복 또한 많이 출시되고 있어서 남자대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평소 생각을 알아보았다(표 13).

우선 한복을 소유 여부에서 대다수가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87.7%), 입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42.0%)로 전혀 입고 싶은 생각이 없는 학생들(8.2%)보다 훨씬 많게 나타났다. 또, 가능성이 개량되며 평소에도 착용하고 싶다고 생각한 학생이 20.8%로 나타나서 한복착용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생활한복에 대한 구매의사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

&lt;표 13&gt; 한복에 대한 생각

변인	구분	빈도 (%)
한복 소유 여부	유	31(12.3)
	무	221(87.7)
한복에 대한 생각	한복은 고유의 의복이므로 항상 입고 싶다	18( 7.3)
	한복은 훌륭하나 기능적이지 못하므로 기능성이 개량되면 평소에도 착용하고 싶다	51(20.8)
	한복이나 개량한복을 평소에도 입고 싶으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된다	44(18.0)
	한복이나 개량 한복을 평소에도 입고 다니고 싶으나 양복에 비해 비싸서 망설여진다	9( 3.7)
	한복은 불편하기는 하나 특별한 날에는 입고 싶다	103(42.0)
	한복은 불편하기만 하여 전혀 입고 싶은 생각이 없다	20( 8.2)
개량한복에 대한 구매의사	전혀 사고 싶지 않다	17( 6.7)
	별로 사고 싶지 않다	48(19.0)
	보통이다	82(32.5)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76(30.2)
	사고 싶다	29(11.5)
	M(SD)	

매의사가 있는 사람이 41.7%로 구매의사가 없는 사람 (25.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우리옷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높았다.

따라서 소비자의 의사를 반영한 한복디자인이 개발되면 남자 대학생은 잠재적인 구매력을 가진 집단으로 사료된다.

최근 생활한복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백화점 입점 등 적극적인 영업전개를 하고 있다. 생활한복의 취지가 우리의 멋을 살리면서 기존의 한복과 다르게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데 있다.

실제로 고름을 단추로 처리하고 남자 바지에 지퍼를 다는 등 많은 부분들이 개량되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내에서는 일부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동아리 단체복이나 학생회 소속 회원들의 유니폼 같은 형태로 고정관념화 되어졌다. 그러므로 생활한복 업체에서는 좀더 현대적인 미를 집목하여 기능성을 보강하고 일부층에서는 입는 옷이 아닌 평상복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의복 착용 특성

#### 1) 체형보완을 위한 고려정도

의복착용시 어느 정도 체형보완을 고려하는지를

전체적인 스타일 18개 항목, 상반신 7개 항목, 하반신 12개 항목, 얼굴형 5개 항목에 대하여 3점 리커드 평가를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전체적인 스타일에 대한 보완사항을 알아본 결과 (표 14), 전체 2.19점으로 약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의복의 조합, 배색, 길이 등에 주로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전체적 의복길이의 효과를 생각한다는 것에 긍정적인 대답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스타일에서 길이, 즉 키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표 15>의 이상형의 체형에서도 나타났듯이 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표 14).

상반신 보완을 위한 고려사항 (표 15)에서는 전체 평균 1.88점으로 약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몸에 붙지 않는 의복을 입는다는 약간 긍정적인 답이 나왔으며, 특히 어깨 패드나 속옷에 의한 보완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용의 기능성 속옷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하반신 보완을 위한 고려사항 (표 16)에서는 전체 평균 2.20점으로 약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형에 신경을 쓴다는 항목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반신과 마찬가지로 속옷으로 커버함이 가장 낮은 고려정도를 나타내었다. 즉, 상반신 보다 하반신커버에 대하여 보다 더 고려하고 있는

<표 14> 전체적인 스타일 커버를 위한 고려 정도

변 인	M(SD)
깔끔한 실루엣의 의복을 입을	2.42(.62)
체형이 드러나는 니트같은 소재는 피함	2.02(.75)
화려한 무늬나 큰 무늬는 피함	2.55(.61)
확장색은 피함	2.24(.63)
전체를 동일계 색상으로 통일	2.24(.70)
단추 등의 장식품의 효과를 생각	1.97(.69)
속옷에 의한 체형보정을 함	1.73(.65)
상하 의복의 조합에 신경 씀	2.70(.49)
상하 의복의 배색에 신경 씀	2.70(.53)
상하 의복의 길이에 신경 씀	2.52(.59)
전체 의복길이의 효과를 생각	2.45(.59)
날씬해 보이는 의복을 잘 입을	2.09(.69)
역삼각형의 실루엣의 옷을 입을	1.81(.57)
세로로 긴 인상을 주도록 신경 씀	2.02(.61)
상반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입을	1.77(.65)
벨트의 폭에 의한 효과를 생각	2.06(.65)
포인트를 상부에 둠	2.05(.63)
바지 길이를 길게 입을	2.45(.65)
전 체	2.19(.23)

<표 15> 상반신 커버를 위한 고려 정도

변 인	M(SD)
어깨패드 넣음	1.59(.60)
소매의 형을 생각하여 의복 선택	2.01(.63)
소매의 연결형태를 생각하여 의복 선택	2.00(.57)
가슴을 강조하는 디자인 선택	1.87(.61)
어깨폭이 넓지 않은 것을 입을	1.83(.60)
몸에 붙지 않는 의복을 입을	2.21(.72)
속옷으로 커버함	1.67(.59)
전 체	1.88(.32)

것을 알 수 있다.

얼굴형에 대한 보완을 위한 고려 정도 (표 17)에서는 전체 평균 2.06점으로 보통 정도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얼굴형을 위한 고려는 헤어스타일에 대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며, 콘트라스트가 강한 배색을 한다는 항목에 대한 고려를 가장 작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체형보완을 위한 고려 정도를 전체적인 스타일, 상반신, 하반신, 얼굴형으로 나누어 살

<표 16> 하반신 커버를 위한 고려 정도

변 인	M(SD)
바지길이에 신경 씀	2.56(.61)
바지형에 신경 씀	2.66(.54)
하반신에 포인트가 있는 의복은 입지 않음	1.89(.53)
딱붙는 바지는 피함	2.21(.79)
허리를 조이게 함	2.06(.69)
벨트를 함	2.74(.50)
속옷으로 커버함	1.71(.60)
반바지는 입지 않음	1.76(.81)
무늬있는 양말은 신지 않음	2.14(.84)
양말의 색에 신경 씀	2.05(.75)
신발의 디자인에 신경 씀	2.57(.64)
신발의 굽높이에 신경 씀	1.98(.70)
전 체	2.20(.27)

<표 17> 얼굴형 커버를 위한 고려 정도

변 인	M(SD)
목둘레의 형에 신경 씀	1.93(.68)
어깨폭을 강조함	1.92(.61)
콘트라스트가 강한 배색을 함	1.89(.52)
목의 V존에 신경 씀	2.04(.65)
헤어스타일에 신경 씀	2.53(.60)
전 체	2.06(.40)

펴본 결과, 하반신 커버를 위한 고려 정도가 가장 크며 그 중에서도 다리길이에 신경을 쓴다고 할 수 있겠다. 상반신 보완을 위한 고려 정도가 가장 적었다.

2) 의복취향과 패션채용

남자대학생들의 의복취향과 새로운 패션채용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 (표 18), 남자대학생들은 외출시 주로 남방과 바지 (63.0%)를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이 캐주얼 정장 (17.5%), 니트류와 바지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차림을 선호하였다. 또, 캐주얼 정장이라고 답한 학생도 일부 있으므로 남성복 업체에서는 통학복으로 착용이 가능한 캐주얼 정장에 대한 머천다이징이 필요한 것을 사료된다.

이런 옷을 선택한 이유로는 선호하므로 (53.3%)가 반수 이상이었고, 어울리니까 (39.2%) 등 타인에 대

&lt;표 18&gt; 의복취향과 패션채용

변 인	구 분	빈도 (%)
외출시 주로 입는 옷	양복정장	6( 2.4)
	캐주얼 정장	43(17.5)
	남방과 바지	155(63.0)
	니트류와 바지	42(17.1)
	코트류	0( 0.0)
선택 이유	선호하므로	113(53.3)
	체형커버를 위해	12( 5.7)
	어울리니까	83(39.2)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4( 1.9)
새로운 패션 채용에 대한 태도	누구보다 먼저 채용	33(13.5)
	조금씩 채용하게 되면 남들보다 상당히 빨리 채용	72(29.5)
	주위의 많은 사람이 채용하게 되면 채용	50(20.5)
	많은 사람이 채용하고 널리 보급되면 그때야 채용	32(13.1)
	거의 채용하지 않음	57(23.4)

&lt;표 19&gt; 선호하는 의복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평가항목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공동성
대담한	.769	-.084	.010	-.054	.046	.603
개성적인	.684	.087	-.023	.116	-.211	.534
활발한	.640	.087	-.176	.431	.177	.665
경쾌한	.622	.159	-.129	.233	.085	.491
섹시한	.559	.215	.071	-.113	-.053	.379
깔끔한	.076	.754	.012	.155	-.022	.599
도시적인	.459	.600	-.051	-.213	-.043	.620
남성적인	.214	.582	-.023	.005	.448	.585
자연스러운	.113	.578	-.090	.469	.119	.589
차분한	-.249	.470	.397	-.111	.344	.571
고전적인	.099	-.127	.783	.047	.063	.645
보수적인	-.257	.043	.729	.033	.140	.620
로맨틱한	.382	.168	.504	.064	-.425	.613
소탈한	.061	-.047	.091	.811	.024	.672
부드러운	.093	.446	.079	.562	.141	.550
여분이 있는	-.132	.068	-.012	.257	.663	.527
직선적인	.358	.043	.201	-.183	.584	.544
수수한	-.154	.263	.341	.314	.525	.583
고유치	3.688	2.637	1.611	1.340	1.114	
설명변량	20.487	14.652	8.953	7.446	6.188	
누적변량	20.487	35.139	44.092	51.538	57.726	

&lt;표 20&gt; 체형의식과 착장행동의 세부적인 고려사항과의 관계

변인	구분	체형에 대한 인식		t값
		보통	보통이 아님	
전체적인 스타일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깔끔한 실루엣의 의복을 입음	2.41(.62)	2.44(.62)	.426
	체형이 드러나는 니트같은 소재는 피함	1.89(.72)	2.21(.76)	3.380***
	화려한 무늬나 큰 무늬는 피함	2.54(.62)	2.57(.60)	.363
	확장색은 피함	2.25(.65)	2.23(.61)	-.246
	전체를 동일계 색상으로 통일	2.26(.69)	2.20(.71)	-.702
	단추등의 장식품의 효과를 생각	1.99(.66)	1.93(.72)	-.675
	속옷에 의한 체형보정을 함	1.73(.65)	1.72(.64)	-.154
	상하 의복의 조합에 신경 씀	2.69(.52)	2.71(.46)	.252
	상하 의복의 길이에 신경 씀	2.67(.58)	2.73(.47)	.942
	전체 의복길이의 효과를 생각	2.55(.57)	2.47(.62)	-1.131
	날씬해 보이는 의복을 잘 입음	2.48(.58)	2.40(.61)	-1.021
	역삼각형의 실루엣의 옷을 입음	2.15(.66)	1.99(.73)	-1.860
	세로로 긴 인상을 주도록 신경 씀	1.82(.57)	1.79(.57)	-.439
	상반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입음	2.08(.59)	1.93(.63)	-1.821
	벨트의 폭에 의한 효과를 생각	1.80(.63)	1.73(.67)	-.850
	포인트를 상부에 둠	2.10(.63)	1.99(.67)	-1.368
바지 길이를 길게 입음	2.09(.63)	1.98(.63)	-1.366	
	2.42(.66)	2.48(.63)	.721	
상반신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어깨패드 넣음	1.55(.58)	1.64(.62)	1.166
	소매의 형을 생각하여 의복 선택	1.94(.64)	2.09(.62)	1.748
	소매의 연결형태를 생각하여 의복 선택	2.01(.56)	1.98(.57)	-.357
	가슴을 강조하는 디자인 선택	1.94(.62)	1.77(.58)	-2.143*
	어깨폭이 넓지 않은 것을 입음	1.85(.60)	1.81(.59)	-.567
	몸에 붙지 않는 의복을 입음	2.10(.75)	2.36(.64)	2.913**
	1.65(.60)	1.68(.58)	.372	
하반신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바지길이에 신경 씀	2.59(.59)	2.52(.65)	-.818
	바지형에 신경 씀	2.63(.54)	2.69(.54)	.781
	하반신에 포인트가 있는 의복은 입지 않음	1.91(.55)	1.88(.52)	-.476
	딱붙는 바지는 피함	2.16(.79)	2.28(.78)	1.102
	허리를 조이게 함	2.06(.69)	2.06(.68)	.005
	벨트를 함	2.69(.55)	2.81(.42)	2.036*
	속옷으로 커버함	1.68(.60)	1.75(.59)	.842
	반바지는 입지 않음	1.73(.78)	1.79(.84)	.598
	무늬있는 양말은 신지 않음	2.16(.82)	2.11(.87)	-.464
	양말의 색에 신경 씀	2.07(.75)	2.03(.75)	-.441
	신발의 디자인에 신경 씀	2.59(.59)	2.53(.72)	-.705
신발의 굽높이에 신경 씀	2.00(.69)	1.93(.71)	-.739	
얼굴형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목둘레의 형에 신경 씀	1.91(.65)	1.93(.72)	.218
	어깨폭을 강조함	1.94(.56)	1.89(.68)	-.696
	콘트라스트가 강한 배색을 함	1.91(.53)	1.85(.51)	-.983
	목의 V존에 신경 씀	2.05(.64)	2.02(.66)	-.370
	헤어스타일에 신경 씀	2.51(.61)	2.54(.60)	.301

\*P&lt;.05, \*\*P&lt;.01, \*\*\*P&lt;.001

한 이목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패션채용에 대한 태도는 남들보다 빠르게 채용하는 쪽이 43% 정도였고, 남들과 비슷하게 채용하는 쪽이 20.5% 정도로 어느 정도 패션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거의 채용하지 않는 학생도 23.4% 정도 되므로 클래식 등의 디자인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선호하는 의복 이미지

18개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SD법에 의한 선호 의복이미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제1요인은 대담한, 개성적인, 활발한 등의 항목에 속하여 이를 개성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20.48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제2요인은 깔끔한, 도시적인, 남성적인 등의 항목에 속하여 남성적인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14.65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제3요인은 고전적인, 보수적인 등의 항목에 속하여 고전적인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8.95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제4요인은 소탈한, 부드러운 등의 항목에 속하며 부드러운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7.44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분이 있는 수수한 등의 항목에 속하여 여유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6.18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5개 요인의 57.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남자대학생들은 개성을 나타내는 의복을 가장 선호하며, 남성적이고 고전적이며, 부드럽고 여유있는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의복디자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4. 체형외식과 착장행동과의 관계

체형외식에 따라 착장행동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57.5%) 과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 (42.5%)으로 나누어서 착장행동시 체형커버에 대한 고려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20, 표 21).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체형외식에 따라 착장행동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Richard와 Hawthorn<sup>34)</sup>의 연구에서와 같이 남자 대학생들은 신체의 외모보다 신체의 기능에 더 관심을 가지므로 신체를 의복과 분리시켜 본다는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남자 대학생들은 의복 선택시 개성을 중요시하여 전체적인 조화에는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의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착장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진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효과적인 착장행동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방법제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체형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 급격히 증가하는 남성들의 패션지향성에

<표 21> 체형외식과 착장행동

변 인	체형에 대한 인식		t값
	보 통	보통이 아님	
전체적인 스타일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2.22(.28)	2.19(.23)	-.701
상반신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1.86(.35)	1.90(.31)	1.020
하반신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2.19(.27)	2.21(.26)	.415
얼굴형 커버를 위한 고려사항	2.07(.38)	2.05(.42)	-.430

34) Richard, E. A. & Hawthorne, R. E. 앞의 책, 190-194.

관심을 가지고 남자대학생들의 신체에 대한 의식과 의복 착용행동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대학생의 신체외식은 외모에 대체로 신경을 썼으며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위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많았다. 그리고 체형보완을 위해서는 운동을 한다가 많았고 무관심, 의복으로 보완, 식사조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불만을 나타내었고 신체 중에서 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상적인 체형으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마르고, 키가 컸으며, 어깨가 넓고, 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게 나타났으며, 피부색은 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서구형의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의복 구입행동 특성은 의복구입시 신체의 불만요소에 약간 신경을 썼으며 옷을 구입할 때는 친구와 가장 많이 동행하였으며 패션정보원으로는 매장의 진열 상품이라고 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옷구입 횟수는 계절별로 한번이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요소중 의복문양은 추상 문양이 많았고 선호하는 색상은 흰색, 검은색 등의 무채색이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색을 선택한 이유는 좋아하는 색이라서 라는 답이 많이 나와서 체형보완이나 유행색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의복 구매태도를 보면 의복 구입시 가장 중점을 두는 항목으로는 디자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의복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로는 전문점이 가장 많았다. 그 장소를 택한 이유로는 개성에 맞아서라는 답이 많이 나왔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의복수에는 보통이다가 많았고 구입하고 싶은 의복으로는 바지, 캐주얼슈츠 등을 선호하였다. 의복구입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호하였고 상점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복 착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답이 나왔으며 생활한복에 대한 구매의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이 나와서 우리 옷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남자 대학생의 의복착장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의복착용시 체형커버 정도를 알아 본 결과 체형커버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자 대학생들은 외출시 주로 남방과 바

지를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선택한 이유는 선호한다는 답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패션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옷을 선택시 개성적인 요인, 남성적 요인, 고전적 요인, 부드러운 요인, 여유요인 등을 고려하여 옷을 구입하였다.

넷째, 체형의식과 착용행동과의 관계를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서 의복 착용시 체형커버 고려 정도를 살펴 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체형 커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집단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남자대학생들은 외모에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지만 의복을 통한 신체보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복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적절한 의복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며 Richard & Hawthorn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체의 외모보다 신체의 기능에 더 관심이 높고 그런 이유로 결정보완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결과로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남자대학생만을 임의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들의 의복 문화 및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의류시장의 마케팅 활동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후속과제로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일반적인 의류학적 지식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와 남자대학생들보다 의복을 보다 선택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남자직장인 등 다양한 층으로 계속해서 연구 되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재숙, “여대생의 의복과 용모의 만족도가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권 1호, 1976.
- 신옥순 외,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 심리학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권 2호, 1978.
- 이경순 외,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위와의 상관연구” - 의복만족도, 과시성, 유행을 중심으로

- 로 - 한국의류학회지 6권 1호, 1982.
- 홍선옥.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사회적 내향성 - 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홍금희. "성인여성의 의복만족도 결정변인연구" - 주거지역에 따른 비교 - 한국의류학회지 8권 3호, 1984.
- 김용숙. "기혼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하여", 대한가정학회지 24권 32호, 1986.
- 임정선. "성인남자의 직업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박정연. "남자대학생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용숙.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4호, 1990.
- 정재은 외.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 1993.
- 정은영 외. "의류상품 이미지에 의한 의복구매과정 모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권 5호, 1994.
- 남미우 외. "성인남자의 의복태도와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I - 대학생과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3권 4호, 1995.
- 김현주. "남자대학생의 자아이미지, 의복행동과 유명상표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미숙 외. "아동의 의복과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2보)" - 체형에 따른 의복변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21권 4호, 1997.
- 이은숙 외. "여대생의 자아조정 수준에 따른 상황별 자아이미지, 의복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7호, 1997.
- 이미정 외. "의복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 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1997.
- 이미숙 외. "아동의 의복과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2보)" - 체형에 따른 의복변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21권 4호, 1997.
- James, W., "The Principle of Psychology", *Authorized Edition* Vol. 1, 1918.
- Creekmore, A. 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 Project. 783.* Michigan State Univ. 1966.
- Hall, C. S and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 Y. : John Wiley & Sons. 1970.
-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 Y. : Basic Books) 1979.
- Sirgy, M. J., "Self Concept in Consumer Behavior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p 287-300 1982.
- Richards, E. A. & Hawthorne, R. 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3), p190-194, 1971.
- 大矢愛美, "女子大生の 身體に對する意識と着裝行動との關聯について" *일본섬유제품소비과학회* 30권 11호, 1989.